

2024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불확실성과 초확장 사이: 중어중문학의 시대적 의제와 실천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일 (토) 09:30~16:30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위당관

- 주최: 한국중어중문학회, 영남중국어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학회, 중한연구학회, 한국중국소설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학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 주관: 한국중어중문학회,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중국연구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한중국대사관, 연세대학교

09:00 ~ 09:30	등록		위당관 B1층 로비
09:30 ~ 11:00	1부		각 분과 발표장
		고전문학(Ⅰ), 고전문학(Ⅱ) 중국어학(Ⅰ), 중국어학(Ⅱ), 중국어학(Ⅲ), 중국어교육(Ⅰ)	
11:10 ~ 11:30	개회식	사회: 박민준 (덕성여대)	위당관 B0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현철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연세대) • 축사: 艾宏歌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공사참사관) • 기념촬영 		위당관 앞
11:40 ~ 12:30	기조강연	사회: 김태은 (연세대)	위당관 B0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장환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 正典의 성립과 변천” • 김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 생성문법학과 생물언어학의 만남” 		
12:30 ~ 13:50	오찬		위당관 B09호
14:00 ~ 15:50	2부		각 분과 발표장
		고전문학(Ⅲ), 중국문화 중국어학(Ⅳ), 중국어학(Ⅴ), 중국어학(Ⅵ), 중국어교육(Ⅱ)	
16:00 ~ 17:30	폐회식	사회: 이석구 (서울시립대)	위당관 B09호
16: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강연 장동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최근 해외 화인 다큐멘터리의 경향과 스토리텔링 특징” • 연합학회 우수논문 시상식 • 격려사: 김시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 • 폐회사: 천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서울대) 		



김 현 철 교수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약력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대학원장, 중국연구원 원장, 한국중어중문학회·한국외국어교육학회·한국중문교육연구회 회장, 중국어문학연구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중국 『漢語學報』·『華文教學與研究』·『澳門語言學刊』·『語言教育與文化傳播研究』 편집위원

존경하는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어중문학회 제31대 회장 김현철입니다. 오늘 저는 성대한 중국어문학의 학술잔치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고 후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연구자와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문과대학의 위당 정인보(鄭寅普) 선생님 기념관인 위당관(爲堂館)에 와 계십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민족의 독립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중요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세대학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일궈낸 인류 공통의 자산을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서 한국을,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여전히 인문학으로 세분된 전공 속에서 탈경계와 융합을 기치로 묵묵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 향후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진정한 고등교육의 교육자를 길러내는 데는 어제와 오늘이 따로 없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사회 환경이 달라졌어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정신적 가치’, 바로 이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인공지능 시대와 초연결사회의 도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인문적 학문 연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적으로는 학문적 치열함으로 무장하고, 외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매우 자랑스러울 거라 믿습니다.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소통, 그것은 두 개의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나누고 회원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찾아주신 여러 연구자와 회원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확실성과 초확장 사이: 중어중문학의 시대적 의제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2024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홍거 교육공사
艾宏歌 公使銜参赞

약력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공사

尊敬的韩国中语中文学会金铉哲会长，
延世大学中文系金长焕教授，
韩国外国语大学金钟镐教授，
高丽大学中文系张东天教授，
各位中文教育领域的专家、学者：

大家好！很高兴受邀参加2024年韩国中语中文学联合研讨会开幕式。我谨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向研讨会的举行表示祝贺，向精心筹备本次活动的韩国中语中文学会全体同仁表示敬意，向出席今天会议的所有专家、学者致以诚挚的问候。

中韩是搬不走的邻居、分不开的伙伴。自1992年建交以来，两国在各领域交流合作都取得丰硕成果，既给两国人民带来巨大福祉，也为地区和平繁荣作出积极贡献。

中国语和中国文化与世界其他各国的语言和文化一道都是中外文明互学互鉴的桥梁，也是中韩两国务实合作、友好交流的重要媒介。韩国中语中文学会作为韩国中文教育领域的重要学术组织，多年来致力于推动韩国中文教育事业发展，促进两国民心相通，增进相互理解，为中韩友好发展做出了积极贡献。借此机会，我谨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向韩国中语中文学会表示崇高敬意！

希望韩国中语中文学会各位专家学者一道，秉持中韩友好的初心和使命，加强交流，深化合作，为推动中韩人文交流和双边关系持续向好发展做出新的更大贡献！

最后，衷心祝愿本次研讨会取得圆满成功，祝愿韩国中语中文学会不断发展，祝各位专家、学者身体健康、万事如意！

谢谢大家！



김 장 환 교수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약력

김장환(金長煥)은 연세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世說新語研究>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 <魏晉南北朝志人小說研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칭 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 같은 대학교 페어뱅크 센터(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방문학자를 지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중문과 교수이자 문과대학 학장으로 있으며, 중국어문학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중국문학의 흐름》, 《중국문학의 향기》, 《중국문학의 향연》, 《劉義慶과 世說新語》, 《동아시아 이야기 보고의 탄생-태평광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中國類書概說》, 《中國歷代筆記概論》, 《世說新語》(전3권), 《世說新語補》(전4권), 《世說新語姓彙韻分》(전3권), 《太平廣記》(전21권), 《太平廣記詳節》(전8권), 《太平廣記鈔》(전16권), 《唐摭言》(전2권), 《列仙傳》, 《西京雜記》, 《高士傳》, 《語林》, 《郭子》, 《俗說》, 《談藪》, 《小說》, 《啓顏錄》, 《神仙傳》, 《玉壺水》, 《列異傳》, 《齊諧記·續齊諧記》, 《宣驗記》, 《述異記》, 《笑林·妬記》, 《古今注》, 《中華古今注》, 《冤魂志》, 《異苑》, 《原化記》, 《魏晉世語》, 《朝野僉載》(전2권), 《開元天寶遺事》, 《邵氏聞見錄》(전2권), 《玉堂閑話》, 《唐闕史》 등이 있으며, 중국 문언소설과 필기문헌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 正典의 성립과 변천

중국 전통 학술의 특징 중 하나는 강한 정치적 성향이다. 본격적인 중국 학술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선진 시기 제자백가의 등장부터가 정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위진남북조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나 현학의 영향을 받아 학술 내부에 본체론적인 측면이 활성화되었고 지식인의 내면적 성찰도 심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학술의 강한 정치적 성향은 여전했다. 당송대를 거치면서 이학의 성립을 통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지식인들의 주체성이 강화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사회 담론과 학술 담론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성향의 학술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학술은 정치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한 무제 이래로 유가의 경전은 청대까지 줄곧 이러한 학술과 정치의 긴밀한 역학 구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가 경전이 안정된 통일국가 속에서 학술과 정치가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때가 아니라 학술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이 약화된 혼란스러운 시기나 정치 담론과 학술 담론이 분리된 시기에야 비로소 학술적인 혁신과 발전의 돌파구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유가 경전의 과거 해석에 대한 꼼꼼한 고찰과 반성, 그리고 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해석의 탄생은 여전히 우리의 철저한 자각과 성찰,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김종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및 대학원 졸(학사: 1985, 석사: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졸(박사: 1994)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1994.9-2009.8)
 UC. Berkeley, center for chinese studies visiting scholar(2002.2-2003.2)
 國立臺灣師範大學 文學院 國文係 客座教授(2018.2-2018.8)
 北京語言大學 語言學係 短期 語言學教授(2019.06.28-2019.07.0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2009.09-현재)

저술

『현대중국어 화제화 이중명사 구문 연구』(2011), 한국문화사
 『현대중국어 10문형 50구문』(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도표로 보는 정통문법』(2012[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공자, 멋진 사람을 말하다』(2013), 한티미디어
 『생성문법이란 무엇인가?』(2015)[공역], 한국문화사
 『논어명구』(2017), HUINE, [세종학술도서(2018)]
 『한문해석공식: 촘스키가 논어를 읽는다면』(2019), 한티미디어, [세종학술도서 선정(2019)]
 『AI시대 기초한문공부: 생성문법으로 한문해석하기』(2020), 한티미디어
 『공식으로 한문 텍스트 읽기: 5문형 16공식』(2023), 한티미디어
 『현대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2023), 한티미디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24)]
 외 80여 편의 중국어학 관련 학술 논문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 생성문법학과 생물언어학의 만남

김춘수(1922-2004) 시인은 불휴(不虧)의 명시 “꽃”에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한다. AI 시대 ‘그것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언어학(Linguistics)의 이름은 무엇일까?

구조주의 언어학과 생성문법은 각각 100여 년과 60여 년의 길다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언어학적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생물언어학을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능력을 뇌 과학과 생물학의 연구와 접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언어능력의 존재, 메카니즘, 기원 등을 밝혀내는 데 유리한 방법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언어학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신경학, 심리학, 문화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영상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하는 종합 과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중국어학도 이와 같은 흐름을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장 동 천 교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약력

고려대 교수, 전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전 고려대 교양교육원 원장

최근 해외 화인 다큐멘터리의 경향과 스토리텔링 특징

중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운동은 이제 국제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으며 중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예술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작품들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극영화들과 전혀 다른 화법으로 중국의 현실을 그려 왔다. 최근에는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해외에서 제작되는 화인 다큐멘터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선댄스 등 최근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의 수상 성과들이 그것을 방증한다. 그들의 작품은 더욱이 OTT 망을 타고 전파되면서, 국가를 초월해서 대중적으로도 환영받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그중에도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작품으로 국제적인 성가를 올린 재미 화인 감독 왕난푸(王男楸)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왕난푸는 중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현재도 연계되어 있지만, 또한 그들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개척해왔다. 본 강연에서는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어 독립 다큐멘터리의 추세를 알아보고, 중국문화 연구와의 접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김시준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

약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

한국중어중문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 연구회, 중국어문학회, 중한연구학회, 한국중국소설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 언어학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게다가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의 제목을 보니 이전과는 달리 각 방면으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국어문학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중국어문학계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데는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앞으로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3년 5월 5일 일요일에 전국민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민항기가 괴한에게 납치되어 춘천공항에 불시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괴한들은 민항기를 대만으로 납치하려고 했으나 조종사의 기지로 춘천에 불시착한 것이었습니다. 괴한들은 대만으로 보내졌고 피랍인들은 한국에 억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피랍사건이 발생한 후 9년만인 1992년,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수교를 발표했습니다. 냉전 국면 속에서 30여 년간 적대관계로 지내던 두 나라가 수교에 이른 것입니다. 이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한국의 기업 들은 중국에 상륙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학계는 중국의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하여 학술교환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중국 각지 대학에 유학하여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30여 년은 한국 중국어문학계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래 국제정세로 인해 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국어문학계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학문연구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는 이번에 학회 창립 이후 최초로 학술상 제도를 설정하여 오늘 제1회 시상식을 가집니다. 여러 학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의 중국어문학 연구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분과별 일정표

시간	발표자	발표내용	사회/토론
1. 고전문학(I)		고전 서사의 세계	
위당관204호			
09:30 ~ 11:00	謝明勳 (臺灣中正大學)	▪ 百回本《西遊記》「續補前置」說考辨：以「平頂山」故事為中心考察	송정화 (이화여대)
	현영희 (연세대)	▪ 동아시아 <우렁각시> 유형 설화 연구	
	郑殿辉 (성결대)	▪ 贾宝玉人格生成的原型基础——兼谈贾宝玉童年故事的潜在意义	김지선 (동국대)
	서윤경 (復旦大學)	▪ 조조형상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	
2. 고전문학(II)		고전 시가의 세계	
위당관205호			
09:30 ~ 11:00	김의정 (성결대)	▪ 五·七言 絶句를 통해 본 명말청초 문인 張岱의 시세계	김지영 (성결대)
	윤석우 (인덕대)	▪ 이백 영물시 연구 (李白 詠物詩 研究)	
	김기원 (신성대)	▪ 당시(唐詩)에 나타난 두견(杜鵑) 이미지 특징 소고	
3. 중국어학(I)		중국어학의 실천적 접근	
위당관201호			
09:30 ~ 11:00	이은경 (한국교원대)	▪ 현대중국어 ‘不’의 응답 기능 분석	원홍 (안양대)
	윤비취 (한국외대)	▪ 주관성 기제가 중국어 구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결과보어구문과 상태보어구문을 중심으로	
	진의낙·김현철 (연세대)	▪ 新兴程度副词“爆”与“暴”的竞争情况考察	진준화 (군산대)
	송화영 (연세대)	▪ 현대중국어 ‘打+NP’ 구문의 의미 확장 연구	
4. 중국어학(II)		중국어학의 실천적 적용	
위당관202호			
09:30 ~ 11:00	冯铮 (浙江外国语学院) 明洋洋 (상지대)	▪ 汉语趋向补语“起来”的引申用法及教学建议 - 基于朝汉平行语料的考察	송미령 (서일대)
	이승희 (광운대)	▪ 현대 중국어 언설동사의 어휘적 특성 및 분포 분석 - 《新闻联播》 뉴스 원고를 중심으로	
	王贝贝 (서울대)	▪ 互动语境中“你看看”的(交互)主观性研究	전금 (국민대)
	류아페이 (서울대)	▪ 状态补语对形容词的选择限制 - 关于状态补语性质的再思考	

시간	발표자	발표내용	사회/토론
5. 중국어학(III)		중국어학의 확장적 접근	
위당관203호			
09:30 ~ 11:00	이경민 (서울대)	▪ 상하이 방언과 한국어의 파열음 비교 연구	김태은 (연세대)
	서미령 (동국대)	▪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경성 지각 및 산출 연구 - 경성 연구의 음향 단서를 중심으로	
	林克勤 (四川外国语大学)	▪ 论智能传播的认知域	한승 (단국대)
	신아사 (이화여대)	▪ 麻嘉國와 바카	
6. 중국어교육(I)		중국어교육의 초확장	
위당관B05호			
09:30 ~ 11:00	윤유정 (경기대)	▪ 중국어 텍스트 테마 전개 모형 연구	조은경 (장안대)
	이륙일 (가톨릭대)	▪ 国别化视角下国际中文教师的自我呈现——基于拟剧理论的个案研究	
	임연정 (단국대)	▪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동량사(动量词) 교육 고찰	정상현 (한국외대)
	송지현 (안양대)	▪ 한어병음은 중국어 발음기호가 아니다	
7. 고전문학(III)		문학 전통의 확장	
위당관204호			
14:00 ~ 15:50	이성현 (연세대)	▪ 중국 근대의 駢文 비평 - 孫德謙의 『六朝麗指』를 중심으로	이육진 (충북대)
	王喬慈 (臺灣大學)	▪ 不穩定的「性靈」: 袁宏道の佛學思想與其詩學實踐	
	박지숙 (전북대)	▪ 明末清初 錢澄之 詩學의 “氣”論 研究	이은주 (한국외대)
	김하늬 (서울대)	▪ 盛世의 글쓰기: 浙西詞派의 계승과 변화 - 청대 厲鶚 詞 고찰	
8. 중국문화		문화에 나타난 시대적 의제	
위당관205호			
14:00 ~ 15:50	황정혜 (고려대)	▪ ‘걷기’를 통한 국토 상상의 체화 — 중국 여행 다큐멘터리 <기묘한 도시 奇妙之城>를 중심으로	서유진 (연세대)
	우취영 (전북대)	▪ 1990年代新生代“断裂”事件回顾	
	김수연 (충북대)	▪ 국치와 기억의 정치	
	김민우 (상지대)	▪ 대만 음악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 구조 변화 분석 - 착근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안창현 (한양대)
	장지원 (경북대)	▪ 韩中学者对跨国改编评价立场的解析—以韩国电影《许三观》为例	
	중국현대문학학회 학술상 시상식		

분과별 일정표

시간	발표자	발표내용	사회/토론
9. 중국어학(IV)		중국어학의 시대적 의제	
위당관201호			
14:00 ~ 15:50	박응석 (연세대)	▪ 포노사피언스와 기호세계	문유미 (전남대)
	이하나 (연세대)	▪ 다중양식텍스트로 본 사랑의 인지 구조	
	진화진 (서울과학기술대)	▪ 구문화와 중국어 형용사 수량구조	김세미 (덕성여대)
	진윤영 (한국외대)	▪ 현대중국어 유형강제 현상에 대한 생성어휘론적 연구	
10. 중국어학(V)		불확실성과 초확장성 사이의 언어학	
위당관202호			
14:00 ~ 15:50	고은미 (한국외대)	▪ 중국어 ‘打击(HIT)’류 동사에 대한 어휘유형론적 고찰 - ‘모스크바 어휘유형론(MLexT)’의 관점에서	정인정 (육군사관학교)
	서나진 (북경사범대)	▪ 중국어 구어의 접속어 사용양상과 논증 구조화	
	류류 (인하대)	▪ 현대중국어 반의관계 사자격(四字格) 성어의 구문적 특징 연구	왕하 (한양대)
	공범련 (한국교원대)	▪ “把NP—V”构式的句法语义功能考察	
11. 중국어학(VI)		언어 연구 지평의 초확장	
위당관203호			
14:00 ~ 15:50	이아형 (부산외대)	▪ 척도형용사 ‘高, 低, 大, 肥’의 ‘Aasp+NP’ 문형 의미확장 연구 - ‘VAasp+NP’ 문형과 ‘Aasp+NP’ 문형을 중심으로	박찬욱 (경희대)
	祁志霞 (부경대)	▪ 位移事件视域下“赶+NP”构式的认知机制考察	
	김현희 (부산대)	▪ 현대 중국어 가족 지칭어의 구어적 특징 고찰	진현 (영남대)
	이슬기 (충북대)	▪ 중국어와 히브리어 명사문과 기사 용법의 상관성에 관한 유형학적 고찰	
12. 중국어교육(II)		AI시대의 중국어 교육	
위당관B05호			
14:00 ~ 15:50	이계정 (수원대)	▪ ChatGPT와 중국어교육	박용진 (전북대)
	정상현 (한국외대)	▪ 교육용 챗봇 활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강병규·楊柳 (서강대)	▪ 중국의 생성형 AI의 HSK 독해 능력 고찰 - Ernie bot4.0(文心一言)을 중심으로	박민준 (덕성여대)
	신근영 (경성대)	▪ AI를 활용한 중국어 자연어처리 실습 교육에 대한 고찰 - 텍스트 크롤링과 워드클라우드 생성을 중심으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NRF-2024S1A8A4A0104313411)
